

# 광주 지하철 공사장 일대 꽉막힌 도로 드디어 뚫리나

공사 구간 복공판 걷어내고 도포 포장 … 22일부터 원상복구  
백운광장·무등시장·금호지구 입구 등 5곳은 전면 개방서 제외

18일 광주시 남구와 서구를 잇는 도시철도 2호선 4공구 현장은 공사 차량과 주행차량이 뒤엉켜 혼잡스런 모습이었다.

광주 도심 곳곳을 가로막았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에서 복공판을 걷어내고 도로를 포장하는 등 막바지 체비가 한창이었다. 오는 22일이면 광주 지하철 공사현장 도로는 원상복구된다. 수년간 이어진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과 소음에 시달려온 시민들에게 '도로 원상복구'는 반기운 소식이다.

영하권 기온은 맴도는 이날 오전 작업자들의 손 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현장은 단순한 공사현장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스포트'의 장이었다. 아스팔트 포장용 롤러(坦دم롤러)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다지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대형 크레인이 지하 공사에 쓰였던 자재를 부자연히 퍼 올렸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피어 오르는 열기와 함께 작업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그동안 도로를 덮고 있던 철제 복공판이 사라진 자리에는 매끈한 아스콘이 깔리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 일대를 통과하려던 운전자들은 복공판에 열기설기 그려진 차선을 따라 '거북이 걸음'을 하며 길게 늘어선 차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평소 같으면 10~15분이면 가는 길인데 요즘은 40분도 넘게 걸린다"며 정말 나흘 안에 공사가 완료되길 하는 건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18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풍암지구 일대에서 차량이 장비반입구 옆을 지나가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

시는 오는 22일까지 1단계 종연장 17km 중 16.3km 구간의 도로 정비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현재 포장률은 96%에 달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은 기간에는 차선 도색 작업과 도로 물청소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세부 정비가 진행되며, 이 모든 공정은 21일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 구간 중 687m 구간은 미가장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간은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향

후 진행될 지하철 내부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필수 진출입로(장비 반입구)로 활용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서구 금호지구 입구(204정거리), 금호시영 1단지(205정거리), 남구 무등시장(210정거리), 북구 중흥삼거리(219정거리) 등 4곳이 이에 해당한다.

상습 청제 구역으로 꾹히는 백운광장 일대의 경우 도시철도 공사와 별개로 진행 중인 '백운지하차도' 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전면 개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광주시는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 행사도 마련했다.

시는 도로 개방일인 22일 오전 10시 시청 행정동 앞에서 강기정 시장과 언론인, 시의원, 소상공인, 일반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 개방 현장 확인' 행사를 갖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4주기 추모식 불발

현대산업개발 측 '백지화' 통보

유가족 대표 반발 성명서 발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유가족들이 사고를 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비협조로 4주기 추모식을 열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안정호 광주화정아이파크 회생자기족협의회 대표는 18일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이 '더 이상 추모식 개최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라 내년 1월 11일 참사 4주기 추모식을 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아파트 완공 전까지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고, 추모비나 현판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최근에는 입장문을 바꿔 올해부터 추모식 지원을 중단하고, 매년 추모식이 열리던 공사현장을 들어가는 것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주기까지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추모식은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현장 내부를 추모식 장소로 제공하며 행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신협 직원 채용 대가 금품 주고받은 임원·조합원 출줄이 집행유예

자녀를 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광주 개인택시 신협 이사들과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이사 A(72)씨와 조합원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채용 청탁을 한 조합원 B(67)씨, 청탁을 주선한 조합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공범인 조합원 4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금품을 주고받은 양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16~2017년 신협 내 특정 조합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300만

~500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중 1명의 자녀는 직원으로 채용됐다가 채용 비리 논란이 커져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일부 피고는 받은 돈을 반환해 실제 쟁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김건희 부실수사' 검수뇌부 전방위 압수수색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22일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검장 체계에 있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박성화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현재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수사 시기 중앙지검에 재직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작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딜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계통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또 이 전 지검장과 김 여사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

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해당 소환조사는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부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뿐 아니라 윤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증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Sohnhe Beohyeon Association



IGRA 보험GA협회  
Insurance GA Association